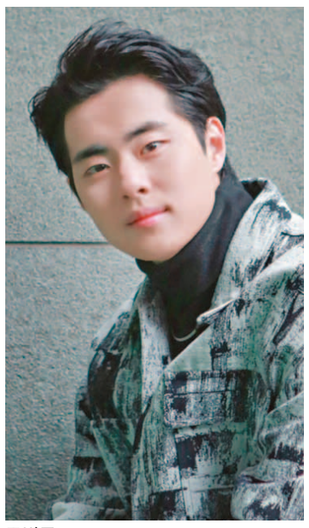
One pick 업 앤 다운

조병규 ‘학폭 논란’ 다시 원점

1 소속사 “게시글 허위 인정, 사과문 보냈다”
2 작성자 “사과문 보낸적 없고 언론 플레이”
3 소속사 사과문 공개…명예 훼손으로 고소


조병규

다시 원점이다. 연기자 조병규가 그동안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최초 폭로자에게 사과를 받으면서 논란을 잠재우는가 싶더니 다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28일 조병규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근거 없는 학폭 논란을 촉발한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피의자는 경찰 수사 중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허위 사실임을 시인하고 이를 반성하는 사과문을 최근 보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게시글 작성자로 지목된 A씨는 29일 SNS를 통해 “사과문을 쓴 적도, 선처를 호소한 적도 없다.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며 “소속사의 입장문에 (적시된)저와 관련된 문장은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B엔터테인먼트는 29일 “A씨의 지인은 A씨와 소통하며 사과문을 보내온 사실이 있으며, 허위 사실 게시물들을 자진해 삭제했다”며 관련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어 “A씨는 선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 허위 사실로 계속 조병규와 소속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A씨가 올린 각 허위 게시물 모두에 대해 경찰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과연 어느 일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양측 모두 첨예하게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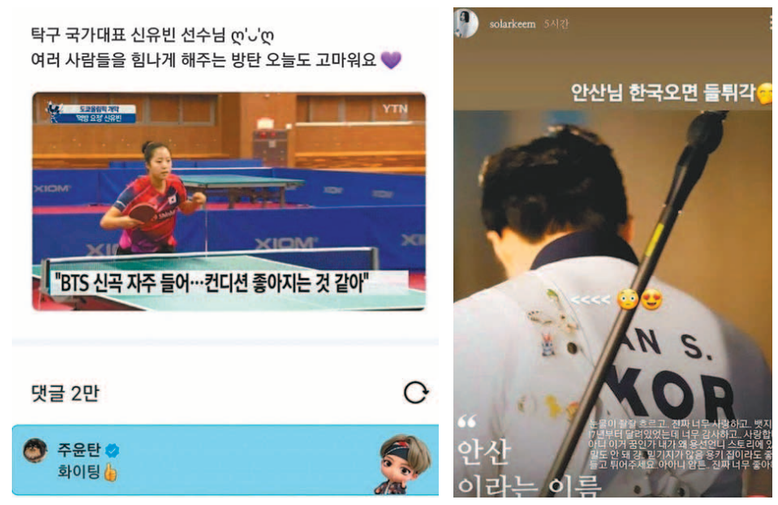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올림픽 함께 뛰어요!

K팝스타의 ‘파이팅♥’…태극전사들, 신났다

뷔, 탁구 신유빈 인터뷰에 댓글
솔라-양궁 안산 “서로 팬” 응원
예지, 수영 황선우 SNS에 격려
K팝그룹들 노래·뮤비로 동참

2020 도쿄올림픽에 나선 대한민국 선수단의 활약에 케이팝 스타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는다. 또 자신들의 노래를 다양한 경기장에서 선보이면서 케이팝의 글로벌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팬인 탁구 대표팀 신유빈이 방탄소년단을 언급한 뉴스의 한 장면을 팬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자 뷔가 “화이팅”이라는 댓글(왼쪽 사진)을 달아 화제를 모았다.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솔라는 안산 양궁 국가대표가 마마무를 상징하는 배지를 매달고 있는 사진을 개인 SNS에 공유하며 호응했다. 사진출처 | 위버스·솔라 SNS

●‘우리는 서로의 팬’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는 탁구 대표팀의 막내 신유빈(17·대한항공)을 응원했다. 신유빈은 앞서 25일 여자단식 2회전에서 ‘백전노장’ 니시아리안(58·룩셈부르크)을 꺾어 국내외 시선을 끌었다. 이날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뷔의 팬인 신유빈이 경기 전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는다는 인터뷰 영상이 오르자 뷔는 “화이팅”이라는 댓글과 엄지손가락 이모티콘을 올렸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이를 보도하면서 두 사람은 또 다른 의미의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룹 마마무의 솔라, 더보이즈의 선우, 있지의 예지 등도 선수들과 소통했다.

솔라는 여자단체전 등 양궁 2관왕에 오른 안산(20·광주여대)에게 힘을 주었다. 자신의 팬인 안산이 경기에 나서면서 마마무의 배지를 달고 나온 데 대한 화답이었다. 솔라는 SNS에 “안산님 한국 오면 들튀각(들고 도망갈 각)”이라고 반겼다. 이에 안산은 “아니 이거 꿈인가, 내가 왜 용선 언니(솔라의 본명) 스토리에 있냐. 말도 안 된다. 믿기지 않는다”며 감격했다.

선우는 역도 여자 55kg급 함은지(24·원주시청)의 팬심에 답했다. 그가 자신의 캐릭터 인형 사진을 SNS에 올리자 팬 플랫폼 유니버스를 통해 “너무 고생하셨고 자랑스럽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예지도 자신의 팬인 선수를 응원했다. 29일 한국 최초로 올림픽 수영 자유형 100m 결선에 올라 5위를 차지한 황선우(18·서울체고)이다. 예지는 황선우가 자신의 팬이라고 밝히자 27일 SNS를 통해 손가락 하트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결승 파이팅♥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황선우는 감격한 심정을 드러내듯 입을 막는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노래로 응원하고…케이팝은 만국 공통어

케이팝 그룹들은 노래로 선수들을 응원한다.

방탄소년단은 대한체육회의 온라인 팀코리아하우스에 ‘버터’(Butter)와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PTD)의 뮤직비디오를 무상 제공했다. 팀코리아하우스는 국가 홍보와 대표 선수단 지원 등을 위해 올림픽 기간 현장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탓에 온라인으로 선보이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VR전시관에서 뮤직비디오를 상영한다. 브레이브걸스, 마마무, 오마이걸, 아스트로, 에이티즈 등도 뮤직비디오로 응원하고 있다.

케이팝 노래는 경기장에서도 울려 퍼진다. 케이팝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28일 남자배구 경기에서 엑소의 ‘돈트 파이트 더 필링’(DON’T FIGHT THE FEELING),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Alcohol-Free), 에이티즈의 ‘불놀이야’(I’m The One) 등이 흘러 나왔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도 빠지지 않았다. 여자배구 미국과 중국전에서 ‘버터’가, 남자체조 평행봉 경기장에서 ‘PTD’가 각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8월, 여전사들 흥행 대전쟁

레드벨벳, 완전체로 2년만에 새앨범
리사 솔로 데뷔, 씨엘은 첫 정규앨범
선미도 미니앨범으로 여름 도전장

걸그룹 레드벨벳과 블랙핑크의 리사, 투애니원 출신 씨엘(왼쪽부터)이 8월 나란히 컴백한다. 사진출처 | 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

레드벨벳, 블랙핑크의 리사, 씨엘, 선미….

이름만으로 흥행 파워를 가늠하게 하는 케이팝 스타들이 잇달아 새 앨범으로 돌아와 한여름 가요시장을 뜨겁게 달군다. 강한 개성과 음악으로 각기 영역을 공고히 다져온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격하면서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들 가운데 팬들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는 그룹은 레드벨벳이다. 2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는 이들은 8월 완전체로 팬들 앞에 선다. 2019년 ‘사이코’ 활동 당시 웬디가 부상을 당하면서 유닛과 솔로 앨범 등 멤버별 개별 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빨간맛’, ‘짐살라빔’, ‘음파음파’ 등 여름에 발표한 곡들이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해 ‘서머 퀸’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만큼 이번 활동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첫 무대로 올해 데뷔 7주년을 맞는 8월 1일 라이브 방송을 연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9일 “데뷔 기념일인 8월1일 오후 8시1분부터 네이버 브이라이브 채널을 통해 스페셜 방송 ‘레드벨벳 데뷔 7주년 축하해피니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데뷔 7주년을 맞은 소감부터 활동 비하인드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레드벨벳과 경쟁하는 이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8월 솔로로 데뷔한다. 제니와 로제에 이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솔로 파워를 과시할 전망이다. 최근 신곡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막바지 앨범 작업에 한창이다.

음악과 패션스타일링 등에서 개성을 드러내온 투애니원 출신 씨엘(CL)도 다음달 중순 컴백한다. 지난해 10월 더블 싱글 ‘화’(HWA)와 ‘5STAR’를 발표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씨엘은 이번엔 첫 번째 정규앨범 ‘알파’(ALPHA)를 내놓고 솔로 가수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각오다.

그동안 1인 레이블 회사인 베리체리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 기반을 다져오다 최근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국내 매니지먼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국내 활동을 예고했다.

‘여성 댄싱 퀸’으로 위상을 다진 선미도 8월2일 미니앨범 ‘1/6’를 들고 돌아온다. 2018년 ‘워닝’ 이후 싱글만 발표하다 3년 만에 내놓는 앨범이다. 최근 “중력이 6분의1인 달에서는 걱정의 무게도 6분의 1일까”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SNS에 올리며 관심을 끌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